

INTERVIEW

한국오리협회 제10대 부회장

정정우(사육 분과) · 마낙중(부화 분과)

이세종(계열 · 유통 분과) · 윤영호(토종오리 분과)



월간 오리마을 이달의 인터뷰 3월호의 주인공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정기총회서 제 10대 임원으로 새롭게 선출된 부회장진이다(△정정우 : 사육분과위원장 △마낙중 : 부화분과위원장 △이세종 : 계열 · 유통분과위원장 △윤영호 : 토종오리분과위원장). 각 분과별 협의를 거쳐 추천에 의해 선출된 부회장진은 각 분과의 현장 종사자로서 그 분야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충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가장 현실적인 입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오리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회원 간 화합 도모를 위한 촉매제 역할로, 협회와 회원의 상호 작용을 위한 주체적인 통로역할로 동분서주할 부회장진을 만나 국내 오리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또한 각 분과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생각을 들어보았다.



정정우 부회장
(사육분과위원장)

국내 오리산업의 시급한 현안사항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주요 축종에 속할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반면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미비합니다. 지난해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축동향조사에 오리가 포함되는 등 서서히 체계가 잡혀가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리 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우리 종사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부 입안자들과의 논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으며, 오리산업에 대한 정책 또한 넓게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현재 한·중 FTA를 앞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아야만 정확하고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육업종사자들은 단순히 사육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정보 입수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정확한 통계자료야말로 오리산업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육두수 및 유통현황 등 많은 정보의 데이터를 표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육분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

사육분과는 오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1차 생산자들이 모인 분과입니다. 오리 산업의 다양한 구성원 중에서 분명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육분과 위원장의 자리는 그런 사육농가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앞으로 저는 임기 내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지회장 회의를 활성화시키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서 사육농가의 사육기술 향상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및 각종 회의에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고, 각 분과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 오리 산업이 발전하려면

톱니바퀴가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려면 각각의 톱니가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잘 돌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이 톱니바퀴처럼 오리 산업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자유무역의 높은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이득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오리 산업은 붕괴되지요. 서로 하나 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의 힘은 거대해지리라 믿습니다.



마낙중 부회장
(부화분과위원장)

**국내 오리산업의
시급한 현안사항은**

작년 연초 발생한 AI로 현재까지 잔존하는 여파 중 지금 시점에 가장 시급한 사안은 과잉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썬이야’라는 생각으로 너도 나도 생산하기 시작한 F1오리가 결국 ‘오리산업 종사자 모두 함께 죽자’라는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협회에서 F1오리 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F1오리 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오리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소비촉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광고 및 옥외광고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신뢰도와 노출도가 가장 높은 매체인 TV광고를 시행 하는 것 또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자조금 거출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부 부화 및 계열업체의 자조금만으로는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쓴 만큼 돌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자조금 거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결국 소비 활성화를 일으킬 것이고,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 정부에서도 오리에 입안된 정책을 하나라도 더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우리 오리산업을 변화 시킬 것입니다. 오리 사육능가부터 부화장, 도압장 및 음식점 등 오리산업 종사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자조금 활동에 참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화 분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

먼저, 축산업 종사자는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부화분과에서는 철저한 방역의 모범이 되어 건강하고 질 좋은 병아리 생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잉생산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F1을 근절하기 위해 혈통보증서의 정확한 이력제가 체계화 되어야 합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혈통보증서가 정착이 된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화분과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오리 산업이 발전하려면

소비자의 신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리고기는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안전하게 공급된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으로 AI의 발생을 막고, 청결한 작업장을 유지해야함은 물론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오리요리 또한 연구 개발하여 대중화 육류로써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의 신뢰만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면 한·중 FTA라는 거대한 위기를 국내산 오리고기의 소비확대를 넓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오리생산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철저한 방어로 국내산 오리고기를 사수하고, 우리 또한 중국에 역 수출 할 수 있는 방향을 꾀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세종 부회장
(계열·유통 분과위원장)

국내 오리산업의 시급한 현안사항은

정부의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갖는다고 밝히자 내수시장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생산 및 인력규모, 가격의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에 개방을 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국내 오리시장은 중국의 저급오리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오리 시장인 중국의 사육수수는 국내 오리사업보다 53배, 오리고기 생산량은 23배, 오리 사육 농가수는 무려 국내 사육농가에 비해 12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오리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어렵게 성장한 국내 오리 산업은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며 덕플레이션(Duck flatation)현상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정부 기관은 보다 전략적이고 세밀하게 한·중 FTA를 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덕플레이션(Duck Inflation)** : 덕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n'과 '오리'를 의미하는 'duck'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다. 보통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이다. 하지만 명목 가격은 그대로 인체 오리의 질이 하락하는 것도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라 볼 수 있다.

계열·유통분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

첫째, 유통단계에서의 오리고기 신선도 유지를 위해 cold-chain-system을 도입하여, 당일생산·당일배송·무재고 원칙을 고수하고, 소비자를 위한 위생적이고 품격 있는 오리의 생산 및 유통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화·사육·생산·유통 체계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내 축산물 경쟁력 제고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육용오리의 근간인 P,S 종오리 DB수립과 원종오리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F, 육용오리를 산란용 오리로의 전환 근절을 위해 업계의 자구 노력과 협회·정부 및 지자체간에 지속적인 규제 및 단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열·유통분과위원장으로서는 앞장서서 F1오리 근절에 힘쓸 것입니다.

국내 오리 산업이 발전하려면

현재 오리산업의 판매 현황은 훈제 45%, 통 오리 및 정육 55%의 구조로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현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그와 더불어 다양한 2차·3차 가공품의 연구개발하고 오리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의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다양한 가공품들을 생산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영호 부회장
(토종오리 분과위원장)

토종오리분과위원장 윤영호입니다. 먼저, 제 10대 임원선거에 공교롭게 참석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2012년을 흑룡의 해라 합니다. 검다의 용이 아니라 현룡(玄龍), 검은 현을 써서 현룡이라 한다면 2012년은 우리산

업전반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옥편에 현(玄)은 밝다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은 현룡의 밝은 기운으로 오리 산업 종사자들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 토종분과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분과위 활성화 방안입니다.

계열분과는 계열 업체가 소속되어야 하고 유통분과는 중소기업유통업체에 이관되어 중소가공업체들도 소속감으로 협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육분과는 사육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각 지회의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 사육회원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협회 구성원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토종오리분과위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지난 총회에서 토종오리분과와 부화분과를 합한다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토종오리분과위원장으로서는 분과 모임을 수시로 갖고 협

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토종오리분과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협회구성원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오리 산업의 미래산업전망입니다.

오리 산업내부와 소비자 간의 견해차이가 존재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메뉴와 상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오리 산업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차별화된 상품의 공급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종사자와 회원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산업 학계 관계기관의 공동 연구 기능 활성화입니다.

산업 학계 관계의 견해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의견일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수출전략산업의 육성방안입니다.

한국의 오리사육기술, 육가공 처리방법, 종축개발, 방역 등 한국형 오리 산업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동반자 관계가 필요합니다.

회원들의 서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협력자,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명 오리 산업은 중소가공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왔고 더욱이 사육농가들의 토대위에 오리산업이 성장했음은 분명합니다. 이제 산업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밝고 아름다운 일들만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